

번호: OP-N-004					
제 목	병원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생활습관과 사회심리적 건강의 관련성 Relationship of Job Stressors and Lifestyle Behaviors to Psychosocial Wellbeing Status among Hospital Workers				
저 자 및 소 속	조성기, 유승흠1), 김광기2), 장세진3)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1)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3)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및 직업의학연구소 Sunngie Cho, Seunghum Yu 1), Kwangki Kim 2), Sei Jin Chang 3) The Korean Alcohol Research Foundation, 1)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 Yonsei University, 2)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Inje University, 3) Dept of Preventive Medicine and Institute of Occupatio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분 야	환경의학 [산업보건]	발 표 자	조성기 일반회원	발 표 형 식	구 연
<p><b>목적:</b> 이 연구는 병원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인자와 생활습관의 사회심리적 건강상태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생활습관이 스트레스 완화기제로서 사회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완충효과를 검증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대상 및 방법:</b> 연구 대상은 대도시인 S시와 중소도시인 G시 및 W시에 위치한 6 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원무 및 일반행정직, 간호직, 기타 기능직과 전공의 등을 포함한 576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직무요구도, 직무재량도, 직업 불안정 등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사회적지지, A형 행동유형, 자기존중심 등의 중재변인들, 그리고 흡연, 음주, 운동, 수면, 아침식사, 건강검진, 일과 후 이완, 식습관, 취미생활 등의 생활습관인자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방법은 직무스트레스인자와 생활습관의 사회심리적 건강상태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t 검정, 분산 분석, 그리고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p> <p><b>결과:</b> 병원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 생활습관, 사회심리적 건강과 관련성이 있는 일반적 특성은 성, 연령, 학력, 결혼상태, 직위, 총수입, 근속년수 등이다. 대체로 여성의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더 높았고, 연령이 낮고, 직위가 낮고, 근속년수가 적은 종사자들일수록 생활습관이 건강하지 못하고, 사회심리적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직무재량도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았으며, 직무요구도와 직업불안정 역시 더 높았다. 사회심리적 건강 수준의 경우 잠재적 스트레스군과 고위험군의 합이 96.6%에 달하고 있었으며, '건강군'은 오히려 다른 산업에 비해 적었다. 특히 사회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고위험군은 여성(22.6%)에서 더 많았다. 병원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생활습관은 대체로 모두 사회심리적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그러나, 통제변수들을 보정한 후 다변량 분석결과 직무스트레스 인자와 생활습관의 사회심리적 건강에 대한 관련성은 유지되었지만 상호작용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심리적 건강과 관련성을 갖는 변수는 고용형태, 직무재량도, 직업불안정, 사회적 지지, A형 행동유형, 자기존중심, 생활습관 등이었고, 이들 변수로 사회심리적 건강을 53.0% 설명하였다. 즉, 정규직일수록, 직무재량도가 클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공격적이고 성취동기가 지나치게 강하지 않을수록, 자존심이 경향이 높을수록,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수록 보다 더 사회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생활습관에서 개별습관들은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었고, 이들을 모두 합한 '전체생활습관' 만이 관련성이 있었다. 생활습관은 A형 행동유형과 자기존중심 등 이성인자들 다음으로 사회심리적 건강상태와 관련성이 큰 인자였다.</p> <p><b>결론:</b> 병원종사자의 전체생활습관은 사회심리적 건강수준의 변화에 강한 관련성이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사회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병원종사자의 생활습관을 포괄적으로 개선시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상호작용효과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어 생활습관이 병원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자체를 완화시키는 완충기제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병원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보건학의 주요 영역인 생활습관과의 관련성을 사회심리적 건강을 대상으로 파악함으로써 병원행정학의 관심영역을 보다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사회심리적 건강을 높이려면 개별 습관이 아니라 전체생활습관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결과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p>					